

# 북스

Books

## 장화홍련전에 후처들의 아픔 담겨 있다

### 전을 범하다

이정원 지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주인공은 자신을 위협에 빠뜨린 인물에게 복수를 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인물은 주인공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아내와 하룻밤을 허락하고, 주인공과 그 인물의 아내는 사랑에 빠져버린다.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끼전'의 일부다. 약자로만 읽혔던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목숨을 건진 뒤 용왕에게 '오래 묵은 자라'가 몸에 좋다고 진언한다. 자라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토끼에게 협상을 제의하자, 토끼는 자라 아내와 하룻밤을 요구한다. '토끼전'에는 다양한 결말이 전해지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모르는 뒷이야기도 많다.

경시대 국문과 이정원 교수의 '전을 범하다'는 고전의 뒤집어 읽기를 시도한 책이다. 권선징악과 충효사상을 벗겨내고 폭력과 일탈, 욕망과 위선으로 가득찬 옛소설의 속살을 파헤친다.

이 책은 모든 고전소설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흥길동전, 적벽가, 토끼전, 춘향전, 전우치전 등 고전 13편의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저자는 효의 대명사로 통하는 '실청전'에서 살인을 발견한다. 이 작품의 본질은 거룩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심청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이다. 심청은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쌀 300석에 팔아넘긴다. 한 인간의 생명이 쌀 300석이라는 조건에 거래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당한 살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시력을 되찾기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장화홍련전'도 조선후기의 폭압적 사회상을 담고 있다. 동화나 고전소설에서 계모는 대개 악녀인데, 1656년 평안도 철산에서 일어난 실제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어졌다는 '장화홍련전'에선 유독 심했다. 전 부인의 딸 장화에게 낙태했다는 누명을 씌워 죽게 한 뒤, 그 동생 홍련의 죽음도 유도한다.

하지만 조금만 계모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후처들은 남편이 죽은 뒤 자신과 혈연이 없는 전처의 아들이 가장이 되거나, 남편이 살아있다 해도 사랑받지 못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 사회의 질서, 집안 사람의 감시를 받는 계모는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약자였다. 정작 비난받아야 할 진범은 가부장제지만, 이 진범은 '사악한 계모'를 내세운 뒤 그 뒤에 숨는다.



'장화홍련전'에 등장하는 계모라는 인물에는 이름없이 살아가야 했던 조선시대 후처들의 아픔이 담겨 있다. 사진은 '장화홍련전'을 현대적으로 리메이크 한 영화 '장화홍련'.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도 새롭다. 양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은 죽을 고비를 갓 넘긴 옛 연인 춘향의 절을 다시 한번 시험한다. 이몽룡에게 춘향은 결국 '정조를 지킨 기생'에 불과했던 것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000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조정래 두번째 장편

#### '불놀이' 재출간

소설가 조정래(67)씨의 장편 '불놀이'가 재출간됐다.



1972년 작 '대장경'에 이은 작가의 두 번째 장편으로, '인간 연습', '인간의 문', '인간의 계단', '인간의 탑' 등 1982년 문예지에 발표한 중편 네 편을 묶어 다듬어 연작 장편으로 발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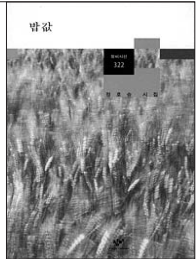
해방 이후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별교를 중심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한을 그렸다. 한 마을의 지주 집안과 그 밑에서 꺾박받고 살아온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살과 대를 이어 되풀이되는 비극적 복수가 펼쳐진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번역 출간됐으며 현재 중국어와 스웨덴어로 번역 중이다.

(해냄·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밥값

정호승 지음



따뜻한 감성으로 소위된 이 웃들의 마음을 보듬어온 정호승(60) 시인의 신작 시집 '밥값'이 출간됐다. 작가의 열번째 시집으로 '포옹' 이후 3년여 만이다.

사랑과 위안을 전하는 시로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 내온 시인이 서정성의 바탕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성찰하고 쓴 시 80편이 실렸다.

"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 늘 고비에 간다 /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서 / 오늘도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고비' 전문)

우선, 시인은 각박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를 극복할 용기를 건넨다.

"어머니 / 아무래도 제가 지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 아무리 멀어도 / 아쉽게 출근하듯이 갔다가 / 저녁에 퇴근하듯이 다녀오겠습니다"('중략') // 너 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었지요 / 지금이라도 밥값을 하러 지옥에 가면 / 비로소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밥값' 중)

상당 수의 시편에서 시인의 삶에 대한 관조를 읽을 수 있다.

본시, 부끄럽고 미약한 존재이며 매일 힘겨운 일상에 치여 사는 평범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자각자 자신이 처한 조건 속에서 자그마한 고민과 실천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시인은 그 인간다운 삶의 길을 '밥값'

하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부른다.

"나는 이미 충분히 불행하다 / 불행이라도 충분히므로 /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는 동안 /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중략') // 남의 불행에서 위로를 받았던 나의 불행이 / 이제 남의 불행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충분한 불행' 중)

하루하루가 고비인 삶 속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절망과 미움보다는 희망을 노래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이미 충분히 불행하다"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긍정을 발견한다.

이처럼 실재와 시련을 부정하지 않고 끝내 희망과 열정을 길어올리는 시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목직 한 울림을 선사한다.

(창비·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밥값하러 지옥에 가면 인간이 될 겁니다"

### 새책



▲살의 여신 1, 2=말레이시아 출신 작가 라니 마니카가 자신의 가족사에서 영감을 얻어 쓴 소설.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굴곡진 근대사를 그린다. 스리랑카 타밀족인 주인공 락슈미는 말레이시아로 시집가 여섯 아이를 낳아 기른다. 타밀족의 후손인 작가는 락슈미와 그의 가족들이 전쟁과 가난 등의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다. (울·1만2000~1만2500원)



▲어쩌면 그림 같은 이야기=화가와 그림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써온 수전 브릴랜드 작가의 첫 단편집이다. 모네, 고흐, 세잔 등 19세기 인상파 화가들과 그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단편 17편이 담겼다. 총 10명의 화가가 등장하며, 그들의 작품 47점이 이야기의 품성함을 더한다. (아트박스·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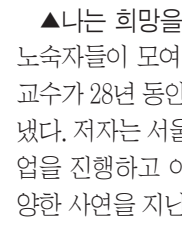
▲죽음의 무도="미저리", '쇼생크 탈출'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공포에 대해 풀어낸다. 소설은 물론 영화부터 TV드라마, 라디오, 만화까지 공포 장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담고 있다. 주로 1950~1980년에 걸친 공포 장르를 통해 공포의 역사를 살펴보고, 왜 사람들이 공포 소설을 읽고 싶어하거나 무서운 것을 보러 극장에 가는지 등의 궁금증을 파헤친다. (황금가지·2만원)



▲에바 브라운, 히틀러의 거울=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삶을 다룬 책. 독일의 역사학자인 저자 하이케 B. 프리데마커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에바 브라운에 관한 수많은 인터뷰와 회고록, 기밀 문서 등을 토대로 베일에 싸여 있던 그녀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간다. (쿠론북·1만7000원)



▲달콤한 작은 거짓말='냉정과 열정 사이'의 작가 예루니 가오리가 결혼이라는 불가사의한 풍경을 특유의 청아한 문체와 잔잔한 화법으로 그려낸 '빨간 장화'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결혼에 관한 연작 소설집. '빨간 장화'에서는 결혼하고 10년, 아이가 없는 허와코와 쇼조의 일상을 단편의 형식을 빌려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렸다면 이번에는 비밀과 거짓말은 투리코와 사토시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 결혼이라는 진실에 대한 또 하나의 물음표를 던진다. (소담출판사·1만1000원)



▲나는 희망을 지휘한다=음악도 모르고, 유희도 모르던 외로운 노숙자들이 모여 감동의 하모니를 이뤄낸다. 흥준철 성공회대 겸임 교수가 28년 동안 합창 지휘를 하며 얻은 인간애와 희망을 글로 풀어냈다. 저자는 서울시가 개설한 인문학 강좌와 대학 강의에서 합창 수업을 진행하고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삼일 지휘자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만났다. (마음의숲·1만3000원)



▲월운리 사람들=2005년 장편소설 '사람도 사는 마을'이 '문학과 의식'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한 안도 출신 이상실씨의 단편 모음집이다. 표제작 '월운리 사람들'을 비롯해 '내 아들을 공개 수배합니다' 등 8편의 작품이 실렸다. '월운리 사람들'은 남해의 작은 섬 유랑도의 마을 월운리를 배경으로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언어 이야기를 중심내용으로 전개된다. (하남·1만원)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0여 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